

대기업 된 소림사, 영리사업 '도마' 위로

이중경투대회 추진, 지난 달엔 무술 모바일 게임 개발

불교를 상업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 소림사가 태권도, 가라데 등 무술 고수를 초청해 최고를 가리는 세계무술대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소림사 주지 쓰용신 스님은 지난 8월 개최된 선불교 관련 포럼 폐막식에서 "세계 무술 고수들이 모여서 서로 일할 것을 겨루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시기와 추진 방향, 시합 규칙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경우 1500년 소림사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무술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인 차이나뉴스닷컴은 쓰용신 스님의 말을 인용, "소림사를 거쳐 간 전 세계 쑹푸와 태권도와 가라데, 킥복싱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무술'을 대표하는 실력자들도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실전 무예의 한마당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불교 신자와 네티즌들은 신성한 참선의 도량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소림사는 최근의 변신이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하는 만큼 상업성을 초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네일리는 최근 경제면 특기사를 통해 "소림 무술 자체가 비즈니스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의 탄압에 1980년대까지 밤 한



무술의 본산인 소림사가 무술학교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본분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술학교 등 9개 계열사 거느린 홍보직 채용에 교수·언론인 등 몰려 네티즌 "이윤 추구 본분 망각" 쓰용신 주지 "중국문화 전파 계기"

끼 먹기 힘들었던 소림사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간 3백만 명의 입장료로 290억 원을 버는 소림사는 무술소와 무술학교,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에선 기념품과 무술 책을 팔고 모바일 게임 사업까지 뛰어들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소림사는 2010년 중국의 페이스북이라 불리는 '시나 웨이보'를 개설해 소통을 시작했다, 현재 팔로워는 15만 명에 이른다.

지난 3월에는 쓰용신 스님이 구글과 애플 등 거대 IT기업의 본고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소림사의 새로운 행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무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소림사의 상업화에 일조했다. 경내에는 외국인 전용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소림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사람의 성장을 방증하듯 소림사는 얼마 전 홍보 책임자와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림사 무형자산관리센터는 "나날이 국제화되는 소림사의 발전에 발맞춰 이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우수한 작문 실력과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고 뉴미디어 관련 경력도 있어야 한다.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실행 능력, 소림사 문화 전파와 발전 의지 등

도 모집 조건에 포함된다.

지원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은 채용 조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채용 담당자는 "성별·결혼 여부 등은 상관없고 출가하거나 채식할 필요 없다. 무술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이 빈번해서는 안 되며 불교, 특히 선종 사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임금은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고가 난지 이틀 만에 지원자는 300명을 넘었고 일자 심사를 거쳐 이력서 80통 정도가 추려졌다. 이 가운데 25%는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고, 대학교수를 비롯해 불교에 관심 있는 주요 언론 경력자와 지역신문 편집장 등 쟁쟁한 지원자도 있었다.

이렇게 소림사가 재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경영학석사(MBA) 출신인 쓰용신 스님의 공이 크다. 쓰용신 스님은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해 황폐해진 소림사를 재건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신성한 종교단체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영리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평론가 왕다웨이는 "최근 소림사의 변화는 소림사의 근본마저 배반하고 있다"며 "소림사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깨끗한 마음으로 몸과 정신을 수련하는 선(禪)과 무(武)의 결합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쓰용신 스님은 "소림사의 이익추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림사의 자회사들은 합법"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싱가포르, 게이랑 불교도서관 오픈

지난 1년간 보수 공사로 새로워진 게이랑 불교도서관이 지난 7일 문을 다시 열었다.

《Straits Times》지는 "1백만 달러를 들여 공사를 마친 게이랑 불교도서관이 7일 1년만에 문을 열었다"고 밝히고, "게이랑 불교도서관은 10만여 권의 불교 관련 전적을 소장한 스리랑카 최대 불교도서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불교도서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오치헤안 장관이 참석,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념식에서 "싱가포르는 인종과 종교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한 테오치헤안 장관은 "게이랑 불교도서관은 싱가포르 불자들의 심신의



다시 문을 연 게이랑(Geylang) 불교도서관 오픈 기념식 사진. 이날 테오치헤안(Teo Chee Hean)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참석, 이목을 집중시켰다.

귀의처이자, 타 종교와 교류하는 '아고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거리의 예불 공간, 지역 사회 힐링

2평 남짓한 예불 공간만으로도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

미국 CBS 방송은 17일 "오를랜드의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꼽히는 11번가에 작은 예불 공간이 들어선 뒤로 범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오를랜드 11번가는 중국·베트남인과 흑인 등이 뒤엉킨 곳으로 마약·폭력 관련 범죄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크리스티나 모이로(Christina Moicillo) 씨 등 지역 자치위원의 제안으로 '부처님을 봉안한 예불 공간'을 개설한 뒤로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예불 공간이 힐링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모이로 씨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5% 정도 범죄율이 낮



지난해 오를랜드 11번가에 세워진 '예불 공간' 전경.

아졌다"며 "예불 공간과 범죄율의 상관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지만, 이곳이 지역 사회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장 스님, 中·印 국경 평화 지켜낼 수 있을까?

고대 불교문명이 인도와 중국, 두 나라의 평화를 다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Nation》지는 "인도 구자라트(Gujarat) 주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이 9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자라트 방문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국 당나라의 구법승 현장 스님 관련 고대 문헌을 게재했다"고 전하고, "이는 우방국으로써 두 나라의 유대를 강조하는 정치적 여파"라고 주목했다

모디 수상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대 문헌(사진 참조)은 7세기 중엽 구자라트 주의 바드나가르(Vadnagar) 지역을 방문한 현장 스님을 묘사한 자료이다.

특히 이 고대 문헌이 중국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배경으로 게재했다는 점에 주목한 《Nation》지는 "중국과의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모디 수상의 뜻이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Nation》지에 따르면, 모디 수상이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연설에서 "당나라 고승 현장 스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구자라트 주는 고대 불교 유산의 보고"라며 "7,000여 년에 달하는 고대 불교 유물은 중국과 인도 양국 유대의 역사성을 고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인 셈이다.

그러나 모디 수상의 바람은 요원한 듯하다. 《Reuters》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국경문제 등을 본격 논의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국경 문제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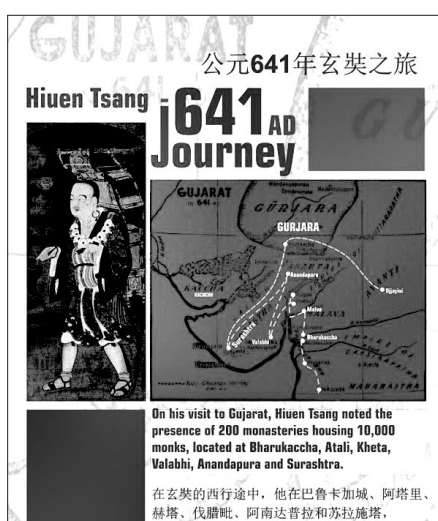
현재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을 확정짓지 못한 3300여km 구간에 사실상의 국경선의

역할을 하는 LAC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최근 구자라트와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 도로 건설을 시작하며 인도 구자라트 주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Reuters》통신에 따르면, 모디 수상은 "국경지역의 평화가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인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ation》지는 "모디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때마다, 당나라 구법승 현장 스님에게 주목했다"고 전제하고, "지난 2011년 모디 수상이 '대사'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 스님을 모티브로 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과 인도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구자라트(Gujarat) 주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수상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당나라 고승 현장 스님 관련 고대 문헌. 이 문헌은 구자라트 주의 바드나가르(Vadnagar) 지역에서 발견됐다.

'개고기' 단속 나선 불교국가 태국

국제사회 관심과 지지 얻으려는 속셈으로 해석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가 개고기 단속에 나섰다. 태국은 불교국가라 대부분 개를 먹지 않는데도 개고기 단속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태국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식용견의 도축과 매매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지난 9월 12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국가 신용도 하락 경고를 받은 태국 군부가 개를 사랑하는 서방의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 불교국가인 태국은 불교의 윤회 사상 때문에 태국인 대부분이 개를 먹지 않고 식용 목적의 개 도축과 판매도 금지

돼 있지만 개를 방생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를 무단 포획해 개고기 수요가 많은 베트남과 중국 시장 등에 내다 파는 경우도 많다.

태국 북동부 현지 시장에서 팔리는 개고기는 1kg에 한화 1만~1만6천원 정도다. 1~3만원 하는 개들은 해외로 팔려나 가면서 최대 10배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태국에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지는 개들은 밀수업자들이 트럭 1대에 1천 마리씩 가득 실어 이동 과정에 부상이나 질식사, 굶주림으로 죽는 경우도 많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태국 군부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나는 기자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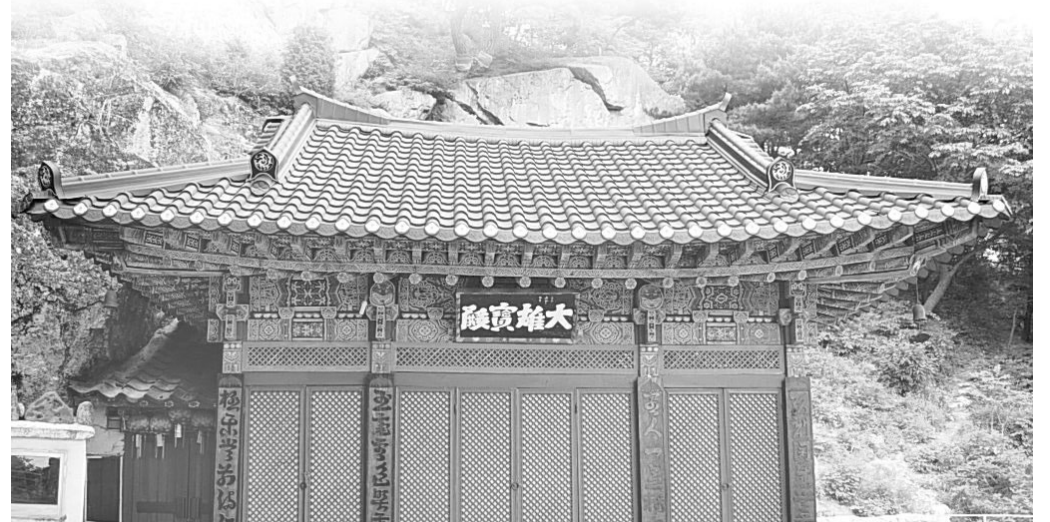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장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